

금지된 감정: 『조선출판경찰월보』의 소설 기록과 탈/식민 센터멘탈리즘*

류진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서 편찬한 『조선출판경찰월보』(1928.9~1938.12)에 실린 소설 기록을 중심으로 탈/식민 센터멘탈리즘의 흔적을 짚어 보고자 했다. 이는 한국문학사에서 여성적인 것으로 젠더화되어 부정적으로 말해졌던 감정주의의 가능성을 되짚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센터멘탈한 것으로서 감정의 감응이 오래동안 식민지인 사이 공감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식민지 검열의 효과로 인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주장이 빠진 빈 곳을 남녀간의 연애로 채우고, 이를 다시 민족과 계급에 대한 감성적인 사랑으로 상승시키는 식민지인의 기획에 누구보다 민감했던 쪽은 바로 제국이었다. 그 지배권력은 탈/식민 주체의 소설적 상상력을 가장 견제했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번역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했다. 특히 이들은 센터멘탈한 장치로서 여성이 개입되어 눈물을 흘리거나, 흘리게 하는 장면을 주로 주목했다. 이는 식민지 근대성이 금지된 감정으로 이뤄지기도 했음을 짐작케 한다. 더하여 이는 센터멘탈리즘이 탈/식민 주체의 젠더 전략일 수도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주제어 : 『조선출판경찰월보』, 검열, 센터멘탈리즘, 감정, 탈식민주의, 젠더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11).

1. 들어가며

그 사람이 눈물이 많다고 해서
그 눈물에 침을 뱉고 그 눈물에 힘을 가하려는 자는 누구인가.
한번 그 눈물의 방울을 석대(石臺)에 놓고 조그만 망치로 때려부숴 봐라.
그 씨 속에는 반드시 붉은 불씨가 뛰어나올 것이다.
우주조차도 태어버릴 불씨가.¹⁾

눈물에 힘이 있을까. 일본어로 적힌 검열 기록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을 수 있게 된 이 시는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눈물의 방울’들은 ‘붉은 불씨’가 아니라, 식민지적 감정으로 지탄됐다. 이 글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긴 검열 기록으로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실린 삭제된 소설로 탈/식민 센터멘탈리즘을 되짚는다.

먼저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그를 반영하는 서사양식으로 소설이 여성적인 것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로 논의를 시작하자.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근대소설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치환하며 시작됐다. 여기에서 “감상은 음(陰)하고 유(柔)한 것”이라고 배척됐고, 여성문제는 ‘보국(保國), 보종(保種), 보교(保教)’라는 민족국가를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제시됐다. 기존의 여성독자가 아니라 새로이 창출된 식자층 남성독자를 겨냥해, 소설에서 여성적으로 간주되는 인간의 정(情)은 정치적 격정으로 전화되어야 했다.²⁾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서 정치나 견책(譴責) 소설이 남성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것과 달리, 조선의 신소설은 집 밖을 나선 여성들의 모험을 성적 수난의 측면에서 그려냈다. 홀로 거리로 나선 조선의 딸들,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위기와 그에 대한 침탈, 통한, 극복 등이 그대로 식민지화와 유비됐다.³⁾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등 울음으로 매체에 식민지

1) 『조선출판경찰월보』 4호, 총독부경무국 도서관, 1928. 12. 이 시는 저자 미상의 「그 사람의 눈물」로 『조선시단』 4호의 추가본(1928. 12. 10)에서 삭제됐다.

2) 이보경, 『문과 노벨의 결혼: 근대 중국의 소설 이론 재편』, 문학과 지성사, 2002, 262~270쪽.

3) 일본이나 중국처럼 정치와 견책 후에야 가정과 원앙호접(鴛鴦胡蝶)의 주제가 나왔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역사·전기물도 『애국부인전』이나 『라란부인전』 등 여성영웅을 내세운 류가 주종이었다. 권보드래, 「평민의 딸, 길 위에 서다 -신소설의

화가 공표됐던 조선에서 감정은 배제될 수 없었다. 이 눈물들은 금지된 것을 대체하고 금지된 곳을 우회하여 여기저기에 흘러 넘쳤다.

이미 러일전쟁기에 기밀누설을 이유로 일본공사가 관련 기사를 게재금지했고, 담당 검열관을 선임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러한 검열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소설이 전면에도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제국신문』에서 휴간과 정간을 13회나 겪은 후, 1906년부터 잡보가 논설을 대체했다. 그리고 소설, 즉 즉각 삭제당할 염려가 없고 원고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혈의 누」 등이 대안이 됐다.⁴⁾ 뒤이어 신문지법(1907)·출판법(1909)의 제정으로 언론 장에서 정치가 금지되자, 이를 보충하는 센터멘탈한 감정이 제시됐던 것이다.⁵⁾ 이승희는 이를 “객관세계에 대한 주체의 절대적인 무력감 속에서도, 이를 완전히 수락하지 않는 주체의 표상”으로 이해했다.⁶⁾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는 신파적인 것들이 통속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한편, 손유경이 입론했듯 식민지 조선의 근대소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계약을 받는 상황에서 고통과 동정 등 특정한 감정을 드러내며 형성됐다.⁷⁾ 이 글은 소설의 전개에서 센터멘탈리즘, 즉 ‘유치한 감성주의’를 극복하고 핏진한 리얼리즘이 등장했다는 정식화를 거스른다. 식민지 언론 장을 구성하는 기제였던 검열을 고려해, 제국권력의 효과이면서 주체수행의 장소이

성·계층·민족],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22~23쪽.

4) 구장률, 「근대계몽기 소설과 검열제도의 상관성」,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2006. 6. 199~228쪽.

5) 정치가 금지된 식민지 언론 장의 구체적인 역할은 사실상 가장 활발하게 내세워졌던 ‘여성’담론을 통해서 적절하게 살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대중매체로서 여성 잡지 역시 검열당국의 조치를 완전히 피해가진 못했지만, 문예담론과 연관되어 비교적 활발하게 생산됐던 것이다. 최경희, 「젠더연구와 검열연구의 교차점에서 -‘여성’ 및 근대여성담론의 식민지적 특수성에 대한 시론」, 『일제 식민지 시기 새로 읽기』, 해안, 2007.

6) 1910년대 신파극을 통해 발현됐던 신파적인 것들이,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대 신극 담론으로 흡수됐다. 이때 식민지 검열의 압력에 어떻게든 미래의 혁명이 도래할 것이라는 인과론적 비약은 종종 언어로 드러나지 못하고 표현주의적인 감정으로 돌파했다. 이승희, 「신파와 막장의 시간성」, 『민족문학사연구』 6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97~132쪽.

7) 혁명가의 자리에 부르주아 심퍼사이저(sympathizer)를 대신 놓거나 하는 등 식민지적 곤란을 증거하는 서사에 대해서는 손유경, 「근대문학과 감정」, 『고통과 동정 -한국 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2008.

기도 했던 센터멘탈리즘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삭제했던 서사들, 그 검열된 소설 기록을 더듬어 식민지 근대성을 형성한 감정의 젠더까지를 밝혀려는 것이기도 하다.

II. 『월보』의 소설 기록과 센터멘탈리즘

일찍이 한국문단사를 정리한 김병익은 일제 하 잡지경영의 3난(亂)으로 자금난, 원고난, 마지막 난중난으로 검열난을 꼽았다.⁸⁾ 식민지기 조선의 종합지를 대표하는 천도교 계열 『개벽』이 창간호(1920. 6)부터 발매금지를 받아, 돌발적인 ‘호외(號外)’로 나왔음이 징후적이었다. 그럼에도 1920년대까지는 검열을 둘러싼 분투가 가능했는데, 이기영의 소설 「호외」(『현대평론』, 1927. 3) 사례가 그랬다. 검열로 원고가 게재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원고료도 미지불되자, 조선문예가협회 작가들이 원고파업을 단행했던 것이다.⁹⁾

그러나 호외로라도 목소리를 내려던 저항의 움직임은 사그라들고, 1910년대 ‘벽돌’신문처럼 명료했던 검열흔적도 검열표준이 세분화하면서 비가시화한다. 1928년부터 10년에 걸쳐 발간된 『조선출판경찰월보』(1928. 9~1938. 12; 이하 『월보』)는 이러한 검열안정기에 매월 간행되던 조선총독부의 비밀 잡지였다.¹⁰⁾ 한마디로 『월보』는 식민지인의 체제변혁적 사상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발간됐다. 즉 제국의 특별고등경찰 및 경무국 도서관의 기

8) 김병익, 「문단 반세기(21) 검열과 필화」, 『동아일보』, 1973.5.11.; 김병익, 『한국 문단사 1908~1970』, 문학과학사, 2001.

9) 「고료 문제로 문예가협회 분개」, 『조선일보』, 1927.3.19.; 「기고거절 결의, 문예가협회서」, 『동아일보』, 1927.3.19.

10) 『조선출판경찰월보』는 정근식·최경희의 「도서관의 설치와 식민지 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한국문학연구』 30, 2006)에서 소개됐다. 현재 1호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며, 2호부터 123호까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있다. 『월보』를 통해 전체 검열의 양상 및 그 통계표가 함의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박현호·손성준, 「한국 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 ‘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 『외국문학연구』 38,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0, 193~422쪽; 이해령, 「식민지 검열과 식민지 제국 표상」, 『대동문화연구』 72, 대동문화연구원, 2010, 491~534쪽.

능강화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출판경찰이 자신의 활동을 정리해놓은 것이었다. 이 자료는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검열의 내용이 장기간, 그것도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기에 가치를 가진다.

대체적으로 『월보』는 다소의 변동에도 통계와 목록, 그리고 요약과 자료라는 체계를 고수했다. 이 글은 그 중 “조선어(혹은 諺文, 鮮文) 신문과 잡지 및 단행본 원고”와 “차압·삭제 및 불허가 출판물 기사요지” 카테고리를 활용한다. 특히 소설로 적시된 출판물이 무슨 이유에서 처분되는지 기록해 놓은 부분에 주목한다.¹¹⁾ 물론 목록에서 제시한 것이 요지에서는 생략될 때도 있고, 반대로 소설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기록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단 『월보』의 목록이나 요지에서 정확히 소설임을 기재하고, 그 처분 이유를 기록해놓은 내용을 살펴본다. 이 기록들은 민족문학사의 빈 곳을 채워야 할 질료가 아니라, 식민지 매체 장에서 어떤 특정 서사들이 금지됐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스크린에 가깝다.¹²⁾

그렇다고 했을 때, 『월보』의 소설 검열 기록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다. 바로 ‘정(情)’, ‘루(淚)’, ‘한(恨)’, ‘광(狂)’, ‘규(叫)’ 등 감정을 나타내는 한자들이다. 이 눈물로 가득찬 감정, 그리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울음 등은 ‘조선독립 고취’나 ‘배일사상 선동’, 그리고 ‘공산주의 선전 감행’ 등 불온기사의 메시지를 가로지른다.¹³⁾

11)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검열 체제의 광범위한 구축 과정에서 ‘내지(內地)’와 ‘반도(半島)’의 출판물뿐 아니라, ‘해외이수입물’도 검열됐다. 이 출판물들은 일본어와 조선어 이외, 러시아어와 중국어 등 언어로 써진 것이었다. 해외수입물의 검열에서 도드라지는 ‘지나(支那)’의 의미에 대해서는 류진희, 「식민지 검열장의 형성과 그 안의 밖 -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있어 ‘지나’라는 메타범주, 『대동문화연구』 27, 대동문화연구소, 2010. 12, 417~445쪽.

12)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 식민지 삭제된 문학 작품들의 구체적인 면모를 재구성한 연구로는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08. 4, 398~422쪽; 문한별,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서 고찰한 일제강점기 단행본 소설 출판 검열의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187~206쪽.

13) 검열 기준은 귀납적으로 추출됐는데, 특히 『조선출판경찰개요』의 1936년판과 1937년판에 “일반검열표준”으로 정리됐다. 크게 안녕질서(치안방해)와 풍속괴란, 그리고 특수검열표준으로 나뉘어 있고, 각 부류에 여러 항목이 세분되어 있다.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70~172쪽.

하나 꼽자면, 1929년 2월에 발간한 『월보』 6호에 실린 소설 『영원의 루(淚)』와 『다정의 루(淚)』이다.¹⁴⁾ 두 소설은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으로 달리 처분됐지만, 전체적으로 눈물을 주된 정조로 한다. 이는 검열표준의 두 축을 아우를만큼 이 감정의 표출에 검열당국이 주목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월보』에서 비교적 길게 일본어 요지로 번역해 것은 대체로 감정이 고양되거나 폭발하는 장면이었다. 대표적으로 1929년 6월, 아마도 3·1운동 10주년에 맞춰 발간을 기한 듯한 『생(生)의 혈루(血淚)』를 보자.¹⁵⁾

“회고해보면 1919년은 융희년호가 명치로 대체되고, 백의민족에게는 일대 변혁의 역사를 펼쳐냈던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대정 8년의 봄이었다. 3월 1일을 맞이하여, 구주 전쟁은 약소민족에게 혹 기회를 주었던가. 세계적 위인인 율슨의 성명, 즉 민족자결주의는 제 약소민족 중, 특히 반도 삼천리 강산에 시들어가고 있던 무궁화에 이슬을 내렸다. 3월 1일 망곡제(望哭祭) 당일, 그 안주군(安州郡·평안남도 서북쪽) 읍내도 무수한 백의군중이 열을 지어서 왕래하고 있었다. 잠시 이서수(李誓洙)군의 의미심장한 슬픈 망곡추도사를 시작으로, 어느새 준비되었던가, 과거 7, 8년간의 행적을 감추고 있었던 ○○○(태극기-인용자)가 갑자기 나부꼈다. 대다수 사람은 ○○○○○(조선독립만세-인용자)를 불렀다. 군중은 열광한 나머지 행렬을 다해 헌병대 앞으로 나가, 그 앞의 십자로에 이르렀다. 헌병분대장은 칼을 뽑고 망을 보고 있었다. 나란히 선두에 서서 북을 울리던 이군은 차단선을 끊고 돌진했다. 분대장의 ‘앗!’하는 호령을 신호

14) 『조선출판경찰월보』 6,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관, 1929. 2. 『월보』 표지와 목록, 그리고 『영원의 루(淚)』와 『다정의 루(淚)』 요지 부분.



15) 『조선출판경찰월보』 10,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관, 1929. 6.

로 충성이 올랐다. 군중은 공포탄이라며 소란해졌는데, 부상자와 도망자가 속출해서 모두 해산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 부분은 3·1운동 당대를 경성을 중심으로 유명한 민족대표 33인이 아닌, 평안남도 서북쪽의 일개 학생 이군을 통해 그려낸다. 박헌호는 죽음을 예감하는 ‘혈(血)’이 후각을 몰수하고 비명과 통곡, 즉 ‘루(淚)’가 청각을 장악하는 3·1운동 당시를 언급했다. 이 압도적 경험이 피식민자 청년들을 데카당트한 신생예술의 신도로, 내일없는 낭만에 들린 자로 변모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문학사에서 이러한 퇴폐주의, 탐미주의, 그리고 감성주의는 유치하고 과잉된 것, 그야말로 ‘느낌표(!)와 물음표(?)가 범람하는 것’으로 치부됐다.¹⁶⁾

그러나 망국의 현현으로 고종의 인산(因山)을 계기로 만세가 터져나왔고, 이 함성은 약육강식을 내세우는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언어에 다름없다. 제1차 대전 종전 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라는 이성의 준칙을 신뢰하고자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학살이라는 제국의 복수였다. 이때 피와 눈물을 되뇌는 것은 식민지 체제를 균열내는 저항으로 변모한다. 민족이라는 동일시는 이 감각을 공유하고 비약을 통해 공통의 감성을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장면은 검열로 삭제됐고, 세기를 격해서야 전해지는 것이다.

이보다 먼저 1928년 10월 3일에 『월보』에서 다섯 쪽에 걸쳐 길게 번역됐던 송영의 『용광로』가 있었다. 저자를 확정할 수 있는 최초의 작품이지만, 억눌린 소리를 표출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¹⁷⁾ 이 소설은 노골적으로 동경시 오오지마(大島)의 철공장을 “임금노예의 대감방”으로, 특히 조선에서 온 어린 ‘고소(小僧·심부름꾼-인용자)’를 “대자본가의 자본확충을 위한 노예”라고 명시했기에 검열됐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된 부분은 병어리로 여겨질 만큼 침묵을 지키던 견습직공 김상덕이 공장 규칙에 반대하여 다른 조선인들을 선동하는 장면이었다.¹⁸⁾ 이렇듯 침묵하던 존재가 목소리를 낼

16) 박헌호, 「3·1운동과 ‘낭만’의 조우 -해방운동의 해방성과 육체성」,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 출판부, 2009, 161~188쪽.

17) 『조선출판경찰월보』 2,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28. 10. 「용광로」는 『개벽』 70호(1926. 2)에 발표됐고, 2년 후 이때 나온 단행본이 차압된 것이었다.

18) 1931년 2월, 불허가된 「창작소설 북간도」(『조선실업회보』 10호) 역시도 토지까지

때, 그 자체로 식민지 상태가 상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저자로는 1931년 3월 편철된 『曙海 단편소설집』의 최서해였다. 여기에서는 식민지인의 피와 눈물, 그리고 절규를 아우르는 육체성이 강조됐다. 바로 “김이라는 부호(富豪)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고용인을 죽이고 그 육(肉)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문제였다.¹⁹⁾ 이 소설에서 시대를 짐작케 하는 구절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치 식인(食人)과 마찬가지로 착취를 강조하는 것이 식민지의 비극을 상기시킨다. 나아가 『동아일보』(1931.2.18.~3.5)에서 15회만에 연재중단된 전무길의 「역경」에서도 성적 침탈을 당한 여성이 마침내 “무엇으로도 이름 지을 수 없을 정도의 탄력과 폭발성을 가진 의협심이 끓어오른다”고 했을 때, 바로 차압이 되는 것이다.²⁰⁾

이런 식민지인의 민족적이고 계급적인 각성을 육체성, 그것도 여성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은 처분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둔 다음 작품들에서 뚜렷하다. 1933년 2월 13일에 불허가된 이기영의 『월희』는 어머니가 부자의 첩이 된 것에 분개하여, 여급에서 여공으로 변모한 월희가 결국 동맹파업에 참여하는 이야기로 번역된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불공평한 XX(계급-인용자)을 저주해야한다. 과연 현재의 세상에서는 한 쪽의 행복을 곧 다른 쪽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문제였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번역된 문장은 월희가 형사에게 이끌려 “별장생활(감옥-인용자)에 가는

빼앗아가는 일본 때문에 두만강을 건넌음을,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음에 절규한다. 『조선출판경찰월보』 30,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1. 3.

- 19) 『조선출판경찰월보』 30,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1. 3. 「홍염」은 『조선문단』 18호(1927년 1월)에 게재됐다. 이후 1931년 11월 「저류」(『신민』, 1926.10), 「갈등」(『신민』, 1928)과 함께 『홍염』(삼천리사, 1931)으로 발간됐다. 이상경에 따르면 삭제된 소설은 「그믐밤」(『신민』, 1926. 5)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상경, 위의 글, 2008. 4. 그믐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김좌수의 아들 만득이 연주창을 오래 앓았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산 뱀에게 물리거나 사람의 고기를 먹이거나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머슴 삼돌이가 결국 희생이 되는 것이다.
- 20) 『조선출판경찰월보』 31,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1. 4. 교사 순이가 교장 영호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후 병원에서 친척 경애를 만나게 되고, 이때 그가 경험한 농촌의 상황을 전해들으면서 계급적인 각성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 16화는 게재되지 못했다. 「『역경』 게재중지」, 『동아일보』, 1931. 3. 12.

것에 어쩌서 모두 우는 것인가”였다. 이는 투사가 된 여성을 향한 눈물이 다른 이를 감응시킬 우려로 주목됐다고 보인다.²¹⁾

이렇듯 감정의 근원적 육체성을 특히 여성을 통해 드러내는 양상은 식민지 센터멘탈리즘과 젠더의 상관관계를 질문하게 한다. 김연숙이 가정소설 「호토토기스」 번역의 구체적인 양상을 통해 확인했듯, 구축(驅逐)되리라던 ‘신파-여성-비극’이라는 연결은 식민지의 문화적 효과로 구축(構築)됐던 것이다.²²⁾ 사실 검열의 흔적들에서 확인되는 것은 인과적인 매개에 따른 정합적 서사가 아니라, 이 흩어진 번역 속에서 식민지 센터멘탈리즘이 종종 여성을 매개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제국과 같이 국가와 가정이 상호적으로 구축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민족과 계급이 교착된 상태로 좌절되어 있음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말해지는 것이다.

이는 1933년 10월 13일 처분된 심훈의 『동방의 애인』이 혁명의 가능성을 동지적 연애라는 감정으로 서술하다 불허가된 데에서도 확인된다.²³⁾ 『월보』에서 이 소설은 기미년말에 중학교 졸업을 하게 된 김동렬과 박진 두 청년이 3·1운동에 참가하면서 감옥에 갇음을 언급하며 시작된다. 이때 인연으로 알게 된 세정과 상하이로 건너가 만나게 된 영숙이 이들과의 연애 관계로 소개된다. 이들 모두는 X씨의 비호로 ‘XX(독립-인용자)운동’에 연루된다. “전 세계의 무산대중, 유린당하고 있는 계급은 모두 이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다”고 했기에 검열됐을 것이다.²⁴⁾

21) 『조선출판경찰월보』 54,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3. 3. 「월희」는 『조선지광』(1929. 1~1930. 1)에 「그들의 남매(일명 월희)」로 1막 연재를 시작했다가 3막부터 개제되어 5막까지 1년간 연재됐다.

22) 김연숙, 「가정소설의 번역과 기획」, 『젠더와 번역-여성 지의 형성과 변전』, 소명, 2013, 157~181쪽.

23) 『조선출판경찰월보』 62,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3. 11. 「동방의 애인」은 『조선일보』(1930.10.29~12.10)에 연재되다가, 39화로 중단됐다. 마지막은 혁명가로 성장한 두 남 주인공들이 모스크바로 가서 레닌의 무덤 등을 참관하고 인터내셔널 당대회에 참여하는 장면이었다.

24) 실제 심훈은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이들 주인공처럼 중국 상해에 머물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이라는 로컬리티가 동아시아적 지평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식민지 검열의 효과이기도 했다. 한기형, 「서사의 로컬리티,

그러나 『월보』가 계급문제에 대한 열변 바로 뒤에 이들 여성당원들이 결국 X의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음을 적어뒀음에 주목하자. 식민지 조선에서도 엘렌 케이가 말한 근대성의 징표로 ‘영과 육의 결합’을 말하고, 또 입센을 쫓아 공사구분의 ‘인형의 집’에서 출분하라고는 했다. 그러나 식민지 여성이 콜론타이식 사회주의에 근거하는, 중국에는 혁명을 목적하는 동지적 연애까지는 주장하진 못했다. 엄연히 ‘붉은 연애’는 검열의 대상이었고, 사회주의 경향문학에서도 종종 혁명을 위해 사랑은 희생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국에 대한 분석이 “독자가 궁금할 것은 알고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노릇”(548)이라며 비워질 때, 그를 치환하는 것은 이들의 “짜트는 사랑”(570)이었다.²⁵⁾

다시 말해 “센티멘탈한 감정은 우리의 금물입니다”(581)라는 견제 역시 이별한 고향을 눈물로 노래하고 그를 달래는 연인이 등장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치적 이념이 빠진 곳을 남녀간 연애로 채우고, 이를 다시 민족과 계급에 대한 사랑으로 감성적으로 복돋는 식민지인의 기획에 민감했던 쪽은 바로 제국의 검열당국이었다. 이 권력의 불안함은 1934년 2월 5일 불허가된 방인근의 『괴청년』의 불허가 이유에서도 드러난다.²⁶⁾ “센티멘탈과는 원수로 여기던 그가 극도로 센티멘탈해졌다. 자기의 신세, 동지의 신세, ○○의 신세 모다 생각하니 슬퍼졌다”²⁷⁾고 했다. 연애와 관련한 개인의 슬픔이 추상적 공동체의 비극으로 확대될 때, 이러한 소설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순간 바로 붓칠이 가해지는 것이다.²⁸⁾

소실된 동아시아-심훈의 중국체험과 『동방의 애인』, 『대동문화연구』 63, 대동문화연구원, 2008. 9, 425~447쪽.

- 25) 인용은 다음에서 족수만 괄호로 표시했다. 심훈, 『동방의 애인』, 『심훈 문학전집』 2, 탐구당, 1966.
- 26) 『조선출판경찰월보』 66,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관, 1934. 3.
- 27) 방인근, 「괴청년」, 『동아일보』, 1931. 10. 18. 「괴청년」은 『동아일보』(1931. 10. 8~10. 28)에 총 18회로 연재중단됐다. 이 소설에서 임호라는 남성은 배우인 최영자가 부호 조병태와 사랑을 나누는 것에 분개하여, 그를 죽이고 재산을 강탈한다.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월보』가 번역하는 것은 그가 잠시 은신처로 삼은 곳에서 만난 김영희라는 여자전문학교생에게 중국의 조선동포들의 참상을 듣고 감화되는 장면이다.
- 28) 1934년 12월, 같은 해 말 『동아일보』에서 삭제된 이석훈의 「광인기」를 보더라도, 쌀을 훔쳐간 이는 일본인 나가무라(中村)라고 소리를 지르는 광인 숙부가 내

III. 검열된 서사, 금지된 감정 –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이렇듯 처분된 소설의 개요들은 식민지의 착취적 상태를 여성 섹슈얼리티를 통해 드러낸 장면으로 추려낸다. 그리고 식민지인들이 동지적 연애라는 성적 관계로 단단히 결연되는 순간도 지워졌다. 그렇다고 했을 때 『월보』에 기재된 소설 중 두 차례에 걸쳐 삭제된 「인간문제」(『동아일보』, 1934. 8. 1~12. 22)가 눈에 들어온다. 강경애가 두 번째 장편소설로 28살 때에 발표했던 이 이야기는 빈농의 딸 선비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주 덕호로 인해 아버지가 죽음을 맞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기탁해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불안한 관계는 얼마되지 않아 성적 폭력으로 파괴되고, 다시 선비는 도시의 방적공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여정에서 선비가 또래의 청년들, 즉 옥점, 간난, 신철, 첫째와 조우하며, 각기 다른 계급과 젠더 관계에서 갈등과 연대가 조망된다. 지주의 딸 옥점과 사회주의자 지식층인 신철은 선비에 각기 적대적이거나, 호의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선비와 연루되어 의미있는 서사를 진척시키지는 않는다. 이 소설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소작인의 딸로서 지주뿐 아니라 공장장으로부터도 성적 위기에 처했던 간난이와의 동지적 관계이다. 선비는 자신보다 앞서 고난을 겪은 간난이를 떠올리며 도시로 왔다가, 또 그의 쫓아 계급 투쟁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에는 지금까지 식민지 검열 장에서 양산된, 그래서 검열 당국에 의해 주시된 연애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서로를 향한 호감이 서사 내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이들의 감정은 발현되지 않도록 단속된다. 옥점은 신철을, 신철은 선비를, 선비는 첫째를 좋아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되지 않는다. 같은 여공으로서 선비와 간난이가 사회주의적 이상으로 더불어 움직이는데 비해, 선비와 첫째의 동지적 연애는 성취될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에서 폐

세워지는 것이다. 이는 미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로서 제국주의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자원을 약탈한다는 절규에 다름없다. 『조선출판경찰월보』 76호,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5. 1. 이석훈의 광인기는 『조선일보』(1934. 11. 22~12. 1)에 연재됐으며, 삭제처분은 10회에서 이뤄졌다.

병으로 의식도 없이 죽어가는 선비를 첫째가 만나러 오는 것이 이들 만남의 전부이다.²⁹⁾

언뜻 이는 차라리 검열의 효과라고 할만큼, 계급과 민족에 대한 공통감각을 겨냥하는 동지적 연애의 상황 자체를 무화시키는 듯하다. 첫째와 선비는 서로를 대면하지 못한 채, 어서 빨리 자신이 깨달은 계급의식을 서로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이렇듯 강경애는 동지적 연애에 대한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다. 거기다 선비의 죽음까지 배치시키며 그 비극성을 고조시켰다. 120회 완(完)에서 “어려서부터 그러케 사모하던 저 선비! 안해로 맞아 아들 딸 나코 살아보라면 선비! 한번 만나 얘기도 못해본 그가 결국은 시체가 되어 바루 눈앞에 노히지 안했는가! 이제야 죽은 선비를 엷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지 안는가”라고 첫째가 울부짖는 것이다.³⁰⁾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때 첫째의 머리 속에 단박에 떠오르는 대상이 신철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사상전환으로 풀려나, 돈 많은 여성과 결혼하여 직장도 구했다고 했다. 첫째는 바로 전향은 그런 여유가 있는 자만이 할 뿐이라고 했다. 결국 시켜면 한 뭉치로 돌아온 선비, 그 시체만이 눈앞에 있을 뿐인 그는 어떤 인간은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지, 두렵지만 이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깨닫는다. 결국 마지막 회의 마지막 문장인 “앞으로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 나갈 인간이 누구까?”는 이 선비와 첫째의 비극에 공감하는 이들을 향한 선동에 다름없다.³¹⁾

그런데 근 5개월을 달려온 연재의 마지막을 달구는 이 절규는 돌출적이

29) 루스 배러클러프는 자본주의적 시장관계에 대한 비판의 표식으로 여공을 선택해 그들이 성적 희생양이 되는 모습을 묘사했던 프로문학의 형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강경애는 공장 내 성폭력 문화에 가장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로 여공을 내세웠고, 이것이 정치적 존재로서 노동자계급 여성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문학』, 후마니타스, 2017. 99~143쪽.

30) 강경애, 「인간문제」(완), 『동아일보』, 1934. 12. 22.

31) 1949년 노동신문사에서 나온 『인간문제』를 저본으로 하는 『강경애 전집』(이상경 엮음, 소명, 1999)에 실린 「인간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첫째와 같이 험상궂은 길을 걸어왔고 또 걷고 있는 그러한 수 많은 인간들이 굳게 뭉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당시 노동신문사의 부주필이었던 강경애의 남편 장하일에 의한 가필일 수도 있지만, 이상경에 따르면 전반적인 솜씨로 보아서 강경애 자신이 단행본 출간을 위해 해두었던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인간문제」 판본에 대해서는 이상경, 「책을 펴내면서」, 위 책, 4~5쪽.

면서도, 걱정만 듯 보인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위해 설정된 선비의 병증이란 별다른 전조 없이 급작스럽기 때문이다.³²⁾ 이에 대해서는 그 전에 두 차례에 걸쳐 무엇이 삭제됐는지, 그 내용을 짚어보는 것이 실마리가 되겠다. 1934년 12월 22일에 완결되기 전, 연달아 2주 동안 12월 7일 106회(일부)와 14일 114회에서 삭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³⁾

“이에 지금 정미소 여공들은 무섭다더라. 저이들끼리 싸이렌을 울리고 막 폭행을 하는데 야단이더라!” 한 노동자가 이렇게 말하되, 첫째를 돌아보았다. 첫째는 상대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그런데 우리두 말이다. 우리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저 이저거든 알고있어!” 주먹을 불끈쥐고 첫째를 향하여 겨눈다. 첫째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껌뻍하였다. 그때 저리로부터 정복순사들이 우루루 밀려왔다. 그래서 한패는 해륙운수관들을 보자 어떤 반항의 불길이 옥하고 치밀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무실에 들어간 동무들이 무슨 소식을 가지고나오기까지 답답한대로 참아야될 것 같아 꼭 참고 있었다.

“위선 나부터도 이 자본주의 사회 제도를 전부 다 올타고 긍정할 수는 없네. 따라서 이 제도를 부인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보겠다는 용감한 투사들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야! 그러나 이 제도를 없이 하려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 아닌가. 즉 장구한 시일과 다수한 희생이 있어야 될 것은 자네가 더 잘 알 것일세. 그러나 이같은 땀땀한 일을 위해서는 나 개인 하나는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남아로써 장쾌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게 되나(이하생략)”³⁴⁾

첫 번째는 첫째가 관여하는 인천 해륙운수조합의 대표진이 사측과 중요

32) 113회(1934. 12. 13)에서 “몸이 좀 아프구나”, “글세... 맥이 없어” 정도 말했을 뿐인 선비는 116회(1934. 12. 18)부터 갑자기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된다.

33) 현재 『동아일보』 기사 DB를 연동해놓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강경애의 「인간문제」 검열 이전의 판본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삭제되지 않은 내용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오히려 106회의 검열된 이미지는 최근 오무라 마스오 와세다대 명예교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는 다음 논문에서 참조할 수 있다. 서정자, 「강경애의 『인간문제』 신문연재 검열 삭제 자료 발굴」, 『여성문학연구』 4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8, 371~382쪽.

34) 『조선출판경찰월보』 76호,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5. 1.

한 담판을 짓고 나오길 노동자들이 부두에서 기다리는 장면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무력하고 성명 없던 자기들이 오늘 이 순간에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권리란 권리는 다 가진 듯이 생각되었다”고 느낀다.³⁵⁾ 이 장면에서 바로 최근 정미소 여공들의 두려움 없는 투쟁이 언급된다. 그리고 그 여성들처럼 주먹을 불끈 쥐리라는 다짐이 곧 반항의 불길로 걷잡을 수 없이 화할 수 있기에 검열 당국의 견제를 받았다고 보인다.

이렇듯 여성들을 통해 혁명적 감정의 고양을 드러내고자 했던 장면이 삭제된 것과 더불어 두 번째로 문제된 것은 바로 혁명이 남성성을 두둔하는 부분이였다. 여기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검거된 신철이 뼈만 앙상한 아버지를 안쓰럽게 면회한 직후, 비열하게 육법전서만 외우던 동창 병식이 예심판사가 되어 자신에게 회유의 말을 했던 것을 상기한다. “나 혼자 더 그랬잖아, 오늘 널로 곧 혁명이 될 것도 아니”라는 그 말에, 애초에는 “타산에 밝은 개인주의적 이론으로 자기를 설복시키려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일종의 모욕도 느꼈다”고 했다.³⁶⁾ 결국 그는 고문의 두려움 등을 이유로 사상전환을 한다. 그리고 이때 선비를 사모하던 마음에 대신 욕점이 적당한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³⁷⁾

이 전환은 사상과 연애가 결합된 방식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저 생활적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안일함과 비루함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이 정상성은 식민지 하층계급인 첫째에게는 획득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하며,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선비의 시신이다. 다시 말해 이는 검열 당국이 그토록 까다롭게 관리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매개된, 민족

35) 강경애, 「인간문제」, 『동아일보』, 1934. 12. 7.

36) 강경애, 「인간문제」, 『동아일보』, 1934. 12. 13.

37) 강경애, 「인간문제」, 『동아일보』, 1934. 12. 16. 『동아일보』에서 116회는 이 날 뿐 아니라, 이를 뒤 18일에도 다른 내용으로 게재됐다. 16일 자는 신철이 감옥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원래 연모했던 선비보다 결혼하기 적당한 상대로 욕점을 더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만의 무의미한 희생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다. 이어 18일자는 선비가 본격적으로 기침을 하고 병증을 느끼며 무신경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신고 있다. 물론 단순히 회수를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지만,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에는 16일 내용 전체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계급 의식의 고양을 목적하는 1949년 노동신문사 판에서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삭제했을 가능성도 짐작하게 한다.

과 계급으로 쉬어 상승할 공동의 슬픔 혹은 동지적 사랑의 불가능성에 다름 없다. 만일 이것이 검열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이 관계가 폭력적으로 무화된, 시체로만 건네지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로 식민지인의 비극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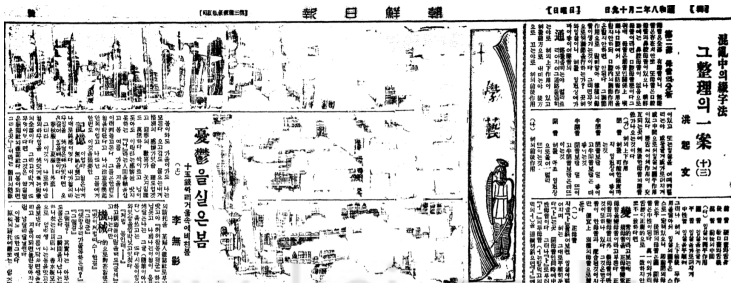
첫째는 선비의 시신에 절규하며, 공사분리의 근대적 가정을 성취하는 부르주아 개인이 불가능한 조선 하층계급의 비극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는 단박에 식민지 근대성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 센터멘탈리즘에 대한 발작적 견제는 1933년 2월 19일 『조선일보』 학예면에 실릴 예정이었던 강경애의 글 「포효! 규환!」가 전문 차압됐던 것에서 짐작된다.³⁸⁾ 이 글은 애초 <봄의 전주곡> 쪽지의 네 번째 글이어야했지만, 결국 “포효의 봄! 규환의 봄! …질곡에 속박되어 신음하는 비겁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과잉된 감정의 표출로,³⁹⁾ 결국 제국의 검열 장에서 거칠게 긁혀진 흔적만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⁴⁰⁾

그야말로 1934년 카프(KAPF)가 해산되고, 『인간문제』는 마지막으로 가능했던 사회주의 지향의 연재소설이라고 했다. 혁명의 실행지 혹은 계급의 식의 격발지로 개인과 그들 사이의 성적 관계가 아니라, 차라리 그를 경계하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 보란 듯 그 불가능성을 외치며 소설의 대

38) 강경애의 봄을 맞는 심정은 작년 간도에서 맹렬히 맞은 봄에 비해 현재 고국에서 편안히 봄을 보내는 데 처절히 성찰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그 전날 실린 박화성의 「산촌의 봄향기」는 닥쳐오고야마는 봄을 맞는 기쁨을 차분히 노래했던 것과 대비된다. 박화성, 「봄의 전주곡(3) 산촌의 봄 향기」, 『조선일보』, 1933. 2. 18.

39) 『조선출판경찰월보』 54호,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3. 3.

40) 강경애의 「봄의 전주곡(4) 포효! 절규!」가 긁혀진, 1933년 2월 19일 일요일 『조선일보』 4면 학예면.



단원이 끝난다. 이후 분단체제에서 개작의 과정을 거쳐, 선미와 첫째의 동지적 관계는 또 좌절되고, 간난이의 역할도 신철의 의미보다 희미해졌다. 그리고 원작에서 평가절하됐던 지식인 남성 신철이 “행동하는 인테리 휴머니스트”로 의미화된다.⁴¹⁾

다음 해 1935년 1월과 2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차례대로 삭제됐던 김정혁의 「이민열차」와 김유정의 「소나기」도 여성을 통해 과거의 행복을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슬퍼한다는 데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황금물결이 이는 가을이 오면 꽃과 같은 딸들이 그네를 타며 즐겁게 놀곤” 했던 마을이 “대나무 꺾질을 벗겨 송진을 꺼내서 먹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춘호 처가 그의 강짜에 못 이겨 돈을 구하기 위해, 이주사를 찾아가서 결국 “아버지의 명령처럼 듣고 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⁴²⁾

이후 『월보』에 기록된 소설들은 단행본 출간 과정에서 한층 더 엄격한 잣대로 검열되기 시작한다. 『인간문제』처럼 연재 시 연달아 삭제처분이 내려졌던 것과 달리, 최초 발표 시 한번 검열됐던 소설이 단행본 발간 시 다시 또 검열되는 것이다. 바로 함대훈의 「폭풍전야」가 그러했다. 이 소설은 1935년 3월, 『조선일보』에 연재할 때 한번 삭제됐다가, 그로부터 4개월 뒤 단행본 출간을 계획할 때 불허가에 다시 처해지는 것이다.⁴³⁾ 연재 시 삭제된 내용은 요지에서 생략됐고, 단행본이 불허가된 이유는 바로 다음 장면 때문이었다. “고국으로 돌아온 성희양! …(중략)…속히 퇴원하셔서 이 봄이 가기 전에 강고한 마음을 다지고 압록강의 푸른 물을 건너와 주기를 바라마지 않

-
- 41) 『동아일보』 연재 시 횡수 차오는 116회가 두 번 나간 것 뿐 아니라, 108회 다음에 109회 없이 110회가 게재된 것, 그리고 111회와 112회가 바뀌어 실린 것이 있기도 했다. 이 같은 원작과 한국에서 처음 나온 1970년 성음사판 개작의 다른 점, 예를 들어 동무를 친구로 바꾸는 등 작은 부분부터, 후반부 ‘애정의 미로’나 ‘운명의 재회’ 등으로 내용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은 송영순, 「강경애의 『인간문제』 원작과 개작의 비교연구」, 『돈암어문학』, 돈암어문학회, 1991. 9, 234-252쪽.
- 42) 『조선출판경찰월보』 77호,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5. 2; 『조선출판경찰월보』 78,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5. 3.
- 43) 식민지기 신문 연재본에서 드러나던 반일, 반제국주의, 민족주의적 색채가 해방 후 단행본에서는 농촌 운동으로의 투신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문한별, 「일제강점기 신문연재소설의 이중검열 양상: 함대훈 장편소설 <폭풍전야>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2016, 249-273쪽.

습니다.”⁴⁴⁾

이는 1년 뒤 1936년 3월, 이태준의 『성모』가 조선어를 강조하는 어머니 때문에 “민족주의를 고취하여 기사전반에 걸쳐 불온서”로 불허가됐던 것과 그 이유가 같을 것이다.⁴⁵⁾ 요컨대 여성에게 건네지는 편지와 여성으로 주장되는 언어를 통해 민족이라는 공통감각을 주창하는 내용은 『월보』의 맨끝 자락에까지 기록된다. 바야흐로 일본 제국주의의 야심찬 발현으로 한반도를 넘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후로는 표와 통계와 더불어 등장하던 요지도 줄었고, 일일이 번역을 하기보단 아예 차지(遮止) 사항을 설정하고 해제하기를 선호했다.

그런 점에서 1938년 10월, 마지막에 번역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삭제된 장면이 의미심장하다. 군국주의를 발판삼아 동아시아에 신속한 근대성을 실현하겠다는 의도는 이미 이때 식민지인에 의해 반박된다. 산책하는 조신인에 의해 목격된 일본 군인들은 조선에서도 동화되지 못하고, 끈기 있게 있지도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삭제된, 그러나 제국의 검열자료에만 번역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 근대적 고사한 감정을 모른다고 비웃었다. 또 가없어 하였다”⁴⁶⁾

IV. 나가며: 탈/식민 감정과 젠더

감정은 근대적 개인성 혹은 주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인 동력으로 작용해왔다.⁴⁷⁾ 이 글은 식민지라는 역사적 조건을 피해갈 수 없었던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월보』라는 검열 기록을 살펴본 것이다. 이때 식민지의

44) 『조선출판경찰월보』 79호,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5. 4; 『조선출판경찰월보』 83호,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5. 8.

45) 『조선출판경찰월보』 91호,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6. 4.

46) 『조선출판경찰월보』 122호,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1938. 11. 이 부분은 이후 단행본에서는 단지 일본 군인의 호화로운 옷음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정도로 조정됐다. 검열로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먼저 지적됐다. 이상경, 앞의 논문, 406쪽.

47) 이명호, 「서문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의 지도 그리기 - 근대/후기근대의 문학과 감정 읽기』, 소명, 2015, 5~35쪽.

영향으로 부정적으로 소화되는 신파적인 것이 사실은 탈/식민 센터멘탈리즘으로 저항적 감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살펴졌다. 이는 서구, 혹은 제국 중심의 근대성을 비판하고 식민지 근대성의 세목을 밝히려는 최근 한국문학 연구에서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다시 말해 근대 국가의 형성과 함께 했던 자국어 문학의 성립에서 감성주의는 적극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다. 식민지 조선의 문학은 오히려 센터멘탈한 감정을 여성을 통해 드러내면서 근대성에 내재하는 모순을 폭로하려고 했다. 이러한 시도는 10여년에 걸친 일본 제국의 검열 기록인 『월보』에 기록됐다. 이후 일본어 번역으로만 전해지는 이 소설들의 파편들은 우선은 민족문학을 오롯이 하는, 빈 곳을 채우는 질료로 주목됐다. 검열 연구 역시도 원본을 확정하기를 주된 미션으로 삼거나, 혹은 이제까지의 정전 구성이 검열이라는 한계 속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글은 『월보』에서 가장 강하게 감지되는 센터멘탈한 감정들을 탈식민 감정의 격동을 예비하는 순간으로 더 주목했다. 눈물과 같은 격렬한 감성은 원칙과 감정 사이에서 해원을 이루고 소망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센터멘탈리즘은 값싼 눈물, 낡은 취향이라기보다, 식민지적 조건에서 불굴의 독자성을 고안해내는 기제이기도 했다. 이 글은 무엇보다 그 감정이 여성을 경유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보』에 기록된 소설 기록에서 드러나는 이 센터멘탈리즘은 식민지를 경유한 한국문학의 특수성, 더 나아가 한국 근대성의 일면이기도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송영, 「용광로」, 『개벽』 70호, 개벽사, 1926. 2.
- 심훈, 「동방의 애인」, 『심훈 문학전집』 2, 탐구당, 1966.
- 이기영, 「월희」, 『조선지광』 82~94호, 조선지광사, 1929.1~1930.1.
-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 1999.
- 최서해, 「홍염」, 『조선문단』 18호, 조선문단사, 1927. 1.
- 『조선출판경찰월보』, 총독부경무국 도서관, 1928.9~1938.12.
-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잡지와 신문.
- 구장률, 「근대계몽기 소설과 검열제도의 상관성」, 『현대문학의 연구』 26호,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2006.
- 권보드래, 「평민의 딸, 길 위에 서다 -신소설의 성·계층·민족」,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 김병익, 『한국 문단사 1908~1970』, 문학과지성사, 2001.
- 김연숙, 「가정소설의 번역과 기획」, 『젠더와 번역 -여성 지의 형성과 변진』, 소명, 2013.
- 루스 배리클러프, 『여공문학』, 후마니타스, 2017.
- 류진희, 「식민지 검열장의 형성과 그 안의 밖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있어 ‘지나’라는 메타범주」, 『대동문화연구』 27호, 대동문화연구소, 2010.
- 문한별,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서 고찰한 일제강점기 단행본 소설 출판 검열의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 문한별, 「일제강점기 신문연재소설의 이중검열 양상: 함대훈 장편소설 <폭풍전야>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2016.
- 박헌호, 「3·1운동과 ‘낭만’의 조우 -해방운동의 해방성과 육체성」,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 출판부, 2009.
- 박헌호·손성준, 「한국 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 ‘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 『외국문학연구』 38,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0.
- 서정자, 「강경애의 『인간문제』 신문연재 검열 삭제 자료 발굴」, 『여성문학

- 연구』 4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8.
- 손유경, 「근대문학과 감정」, 『고통과 동정 -한국 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2008.
- 송영순, 「강경애의 『인간문제』 원작과 개작의 비교연구」, 『돈암어문학』, 돈암어문학회, 1991.
- 이명호, 「서문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의 지도 그리기 - 근대/후기근대의 문학과 감정 읽기』, 소명, 2015.
- 이보경, 『문과 노벨의 결혼: 근대 중국의 소설 이론 재편』, 문학과 지성사, 2002.
-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7호, 한국근대문학회, 2008.
- 이승희, 「신파와 막장의 시간성」, 『민족문학사연구』 67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 이혜령, 「식민지 검열과 식민지 제국 표상」, 『대동문화연구』 72, 대동문화연구원, 2010.
-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최경희, 「젠더연구와 검열연구의 교차점에서 -‘여성’ 및 근대여성담론의 식민지적 특수성에 대한 시론」, 『일제 식민지 시기 새로 읽기』, 혜안, 2007.
- 한기형, 「서사의 로칼리티, 소실된 동아시아 -심훈의 중국체험과 『동방의 애인』」, 『대동문화연구』 63, 대동문화연구원, 2008.9.

❖ ABSTRACT

Forbidden Emotion: The Records of Censored
Novels Monthly Report of Joseon Publication
Police and Post/Colonial Sentimentalism

Ryu, Jinhee

This paper investigates post/colonial sentimentalism by examining the records of deleted novels that were published in the Monthly Report of Joseon Publication Police (September 1928 to December 1938), compiled by the Book Division in the Police Bureau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u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study revisits the possibility of sentimentalism, which has been negatively discussed and subsequently reviewed as a feminine gendered featur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a core element of the post/colonial subjects.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highlights the relationship of the emotional response to the idea of sentimentalism, which is seen to have formed a base of sympathy among the colonized people. According to the incidence and influence of colonial censorship, the empty spaces left by the removal of political and ideological arguments were filled with the development and creation of love stories as experienced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empire was most sensitive to the colonized people raising these love stories to sentimental love stories about the plight of the people and the status of class in that society. The hegemonic ruling power kept the closest watch on the fictional imagination of the post/colonial subjects, and to determine the content, the colonial government took extra measures into monitoring the translating of all of the literature that was produced by local authors at that time in the region. They particularly paid attention to the scenes in which female characters intervened as the most sentimental literary device, including

when the women shed their tears. This was often comprised of feelings that were forbidden by colonial modernity, and the possibility of sentimentalism becoming the topic of highlight as a gendered strategy of the post/colonial subject.

Key Words : Monthly Report of Joseon Publication Police, censorship, sentimentalism, emotion, post/colonialism, gender

- 논문접수일 : 2019. 02. 10
- 심사완료일 : 2019. 03. 01
- 게재확정일 : 2019. 03. 11